

법무부

즉시 배포
2006년 4월 26일

맥킨티 정부 온타리오 주 인권보호 강화
인권제도 현대화 및 공익 증진을 위한 법안

토론토 — 맥킨티 정부는 통과될 경우 온타리오 주의 인권을 증진 및 강화시킬 법안을 상정했다고 마이클 브라이언트 법무장관이 오늘 발표했다.

브라이언트 장관은 “우리 정부는 인권을 증진시키고, 차별을 타파하고,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. 현대화된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인권옹호자가 되어 차별 예방에 힘쓸 것이며,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인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법안 상정된 2006년도 인권법 수정안에 따르면, 온타리오 주 인권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.

- 공공교육, 제도적 장려, 홍보, 연구 및 분석 등의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으로써 차별을 예방하는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(OHRC)의 역할 강화
- 보다 강력해진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(HRTO)에 직접 제소함으로써 조정, 판결 및 시행명령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치
- 인권심판소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보, 지원, 조언 및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법률지원센터(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) 신설
-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내에 반인종차별 사무국과 장애인권리 사무국 신설

.../2

OHRC의 바바라 홀 수석판무관은 “우리 위원회는 인권 분야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온타리오 주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진일보된 인권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HRTO의 마이클 고트하일 위원장은 “이 법안이 제정되면 온타리오 주 주민들은 인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. 법안 시행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 HIV & AIDS 법률상담소(온타리오 주)의 루스 캐리 전무이사는 “인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법무장관의 입법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. 인권 및 지역사회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요구해왔다. 우리는 인권에 대한 현정부의 헌신을 환영한다”고 말했다.

“우리는 10년 넘게 들어온 인권제도 개혁 요구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다. 이 새 법안은 우리 온타리오 주의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킬 것”이라고 브라이언트 장관은 덧붙였다.

- 30 -

연락처:

Greg Crone
장관실
(416) 326-1785

Brendan Crawley
홍보과
(416) 326-2210

www.attorneygeneral.jus.gov.on.ca

이 문서는 www.attorneygeneral.jus.gov.on.ca에 14 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.

일반 전화문의: 416-326-2220 또는 1-800-518-7901

시각장애인은 상기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.
녹음된 문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.

요청하시면 점자로 된 문서를 드립니다.

TTY: 416-326-4012